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하느님 아버지 아빠

김영문 브루노 신부

어른이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급기야 멀어지고 잊혀져가는 이름 엄마 아빠

아이 때 늘 찾고 부를 때마다 든든했다

신앙으로 태어나 영적 성장하면서 부르는 이름

하느님 아버지 아빠

힘겨울수록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이름

잊었던 부모님 세월도 다시 살아나고

가족과 사랑으로 함께 머물게 하는 이름

하느님 아버지 아빠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2/03/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1,415

현재 참가 인원 -92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현황 (12/7 총 집계)

김다울, 강승자, 구현우, 권명순, 김경중, 김경화, 김경희, 김길수, 김성희, 김영환, 김요셉, 김추희, 김춘식, 김화순, 노성진, 문소정, 박민수, 박열, 박의전, 박철균, 서순석, 서억원, 성효진, 신경협, 신인철, 신철순, 심진수, 안신자, 양대석, 엄미숙, 오세영, 유승일, 윤법영, 이계숙, 박인순(2회), 이명희, 이보현, 이복자, 이서영, 이승우, 이은정, 이정원, 이정인, 이종성, 이주리, 이진국, 이진만, 이춘자, 이태경, 이항기, 임동연, 이운선(2회), 임재욱, 장인섭, 정명자, 정상훈, 정승범, 조성욱, 조윤경, 조혜원, 조희성, 지유선, 최민정, 최정필, 최주연, 탁희선, 한정순, 홍소영, 조 그레이스, 홍종미, 머길티오/에버렛 구역, 에드먼즈/린우드 구역, 울프레아, 성모회, 제대회, 익명(4명), **단체 5개, 개인 74명 참여, 총 모금액 \$66,655**



예루살렘의 치릴로

- 예비신자 교육의 대가
- 주옥같은 교리서, “지금도 중요한 문헌”
- 삼위일체 교리 설정에 크게 공헌

“여러분은 먼저 세례성사가 거행되는 성전 바깥으로 나가 동쪽을 향해 선 채 귀를 기울였고, 마치 사탄이 여기 있더라도 한 듯 그렇게 사탄을 끌어버리면서 손을 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에서 하나의 상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약하고 잔인한 파라오가 자유롭고 관대한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할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이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문에는 어린양의 피가 발려 있었는데, 이것은 학살의 천사들이 피의 표식을 지닌 집들을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신비교육』 중)

‘예비신자 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치릴로(313~387)는 동방 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도 ‘교회 학자’(Doctor Ecclesiae)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교회 학자는 뛰어난 가르침이 인정되어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선포가 있어야 가능한데, 특히 교부들이 학자 칭호를 받는 경우는 더욱 특별한 학문적 권위를 지닌 인물임을 뜻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특히 성서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는 349년 막시모(Maximus)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체사레아의 주교이자 아리우스파 인물이었던 아카키우스(Acacius)에게서 서품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되어, 대주교 아카키우스와 마찰을 빚었고 아리우스파 또는 반(反)아리우스파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아카키우스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여 치릴로를 해임하였으나, 그는 이에 저항했고 그 결과 아카키우스는 군사를 동원해 무력으로 그를 추방했다. 세 차례나 예루살렘 밖으로 유배를 당했던 치릴로는 38년의 주교 임기 가운데 무려 16년을 귀양살이

로 보내야 했다. 유배에서 돌아온 치릴로는 아리우스파와 정통 신앙인들로 분열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동시에 순례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그 품위를 회복하도록 힘썼다.

그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 세계 공의회에 참석하여 니케아 신경 수정안의 선포를 도모했다. 특히 “일체”(ἁποθυστος), 즉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같은 본성을 지니신다는 표현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아리우스파의 양자설을 배척한 것이며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성령께까지 연결시키는 성삼위일체 교리 설정에 크게 공헌한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참회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공의회 주교들은 그를 아리우스주의에 맞선 정통 신앙의 투사로 찬양하였다.

치릴로가 교리 교육의 대가로 불리는 것은 『예비신자 교리』를 비롯한 주옥같은 교리서들의 영향 때문이다. 사상·전례·성예수·그리스도교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의 황금기를 이룬 4세기 교회에서, 성인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성인 예비신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유아 세례자의 수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례 교리 교육의 황금기 속에서 동서 교회의 주교들은 성인 교리 교육을 위해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 24편의 강론으로 구성된 치릴로의 『예비신자 교리』는 예비신자들과 새 영세자들을 위한 신앙과 생활의 지침서로서 오늘날까지도 교의적·전례적으로 중요한 문헌으로 남아 있다. 이 교리서들은 348년 사순 시기와 파스카 주간에 발표된 것으로 전해지며, 학자들로부터 “입문 교리서의 완전한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릴로는 예루살렘 주님 성묘 성당에서 이 강론들을 전



했으며, 한 청취자가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전승도 전해진다. 사순 시기의 교리 교육에서 치릴로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선포하는 성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며,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의 성사들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그는 세례 때 고백하는 신경에 집약된 신앙 진리를 빠짐없이 설명하면서 각 신앙 교리를 체계적으로 풀어낸다. 세례 후 부활 주간에 행한 『신비교육』에서는 구약 성서를 신약 사건의 예형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세례의 예형으로 홍해 도하를 들고, 성찬례의 예형으로는 만나를 제시하는 등 구약의 사건들을 전례 예식 설명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강의들은 당시 예루살렘 전례를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신비교육 신학과 세례 교리 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평가된다.

학자들은 치릴로를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나 포아티에의 주교 힐라리우스처럼, 니케아 공의회와 정통 교리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겪은 인물로 설명한다. 동시에 그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힘을 지닌 인물로서, 시련 속에서도 곳곳이 서서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일치를 모색했던 목자였다.

치릴로는 387년 3월 18일 선종했으며, 동방 교회에서는 이날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공지 사항

1 미사 일정 안내

주님 성탄미사

- 주님 성탄 밤 미사 : 12/24(수) 저녁 7:00
(구유 예절로 시작) - **오전 미사(10시) 없습니다.**
- 주님 성탄 낮 미사 : 12/25(목) 오전 10:00
(미사 후 성탄제 진행) - **저녁 미사(7시) 없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2/31 (수) : 저녁 7:00
- 26/1/1 (목) : 저녁 7:00
-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므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겨울방학 및 성탄절을 맞아 12/28, 1/4(주일)에는 11:30 미사 및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 * 26/1/3 (토) : 저녁 미사(7시) 없습니다.

2 2025 성탄제 안내

12/25(목) 성탄제를 개최합니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성탄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모든 신자분들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시노드 참가 대상자 설명회

- 일시 : 12/21(주일) 오후 1시
 - 대상 : 시노드 신청자
 - 내용 : 시노드 일정 및 진행에 대한 설명회
 - 장소 : 성전
-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시노드에 참가 신청하신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정 담당자 회의

- 일시 : 12/27(토) 오전 11시
 - 장소 : 101호실
 - 대상 : 50주년 위원회, 올드레아, 꾸리아, 한글학교, 성물방 재정담당자.
- * 해당 단체의 재정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진 성사 안내

2026/5/31(주일)에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연결된 필수 성사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모든 신자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2026/01/25까지

6 교무금/ 기부금 납입 안내

2025년 교무금 정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31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12/31)까지 납부하신 금액만 세금 보고 서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년(2026/1/1 이후)에 납부하시는 금액은 2027년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2026년도 본당 달력

2026년도 본당 달력을 가정마다 1부씩 가져가시고, 후에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8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 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 신청 마감 : 2025년 12월 30일
- 링크 : [Tinyurl.com/cblmseattle2025](https://tinyurl.com/cblmseattle2025)



9 2027 세계 청년대회(WYD)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이사 7,10-14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화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2독서 로마 1,1-7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18-24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림 제3주일 (12/14)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6명	78명	205명	179명	46명	544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97 예물 준비 성가 : 215, 510 성체 성가 : 153, 169 파견 성가 : 89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윅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패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화요일 (12/23/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2/20/26)

대림 시기, 아마존과 베들레헴이 주는 ‘구원 메시지’

+ 찬미 예수님!

올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벨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Bethlehem)의 포르투갈어 이름이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은 대림시기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희망을 다지는 때다. 벨렝에서 열린 회의는 바로 이 대림의 의미를 세계가 함께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듯하다.

아마존은 지구 생태계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전 세계 생물 종의 10~15%가 이곳에 살고 있으며, 숲의 증산작용은 매일 막대한 수분을 대기 중으로 이동시켜 지구 기후 순환을 유지한다. 또한, 아마존 산림은 탄소를 저장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핵심축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산불, 무분별한 벌채로 아마존의 20% 이상이 이미 파괴되었다. 과학자들은 파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질서의 붕괴다.

대림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기이며,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의 오심은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느님 사랑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남미의 ‘베들레헴’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한다는 사실은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돌보는 부르심이며, 새 생명을 향한 희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초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에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다. 생물 종 하나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느님 가족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아마존의 붕괴는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고통을 준다. 숲과 함께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문화는 붕괴되고 있다. 이는 복음이 강조한 약자 우선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아마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자 신앙적 응답이 필요한 과제다. 대림시기를 지내는 우리는 피조물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창조세계 회복에 동참할 책임을 지닌다. 아마존을 지키는 일은 단지 숲을 보호하는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신앙의 행위다.

벨렝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는 오늘, 창조세계를 위한 새로운 베들레헴의 희망을 선택하겠는가?”

대림초의 빛은 희망을 상징한다. 오늘 아마존은 그 희망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마존을 돌보는 일은 곧 생명을 돌보는 일이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 준비이다.

글 _ 전의찬 스테파노(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세종대학교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

2025년 12월 14일
제 3470호 16면에서 발췌